



# ‘賞賞 KIA’ 연말 트로피 잔치



### MVP 그랜드슬램·올해의 선수상 이어 조아대상 배출 단장·감독·코치도 상복... 11일 골든글러브 수상 큰 관심

KIA 타이거즈의 트로피 싸움이 시작됐다. 12월은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휴식의 달이자 결실을 맺는 시상식의 달이다.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은 물론 MVP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KIA는 그 여세를 몰아 연말 각종 시상식 트로피 싸움에 나섰다. 이번주에만 골든글러브 시상식 등 4개의 시상식이 한꺼번에 열려 상복 터진 KIA의 발걸음이 바쁘다. KIA는 7일 열린 '2009 조아대상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4개의 상패를 차지했다. 타격 3관왕에 오르며 시즌 MVP에 등극했던 김상현(사진)은 이날 대상을 수상하며 1천만원의 상금과 순금으로 도금한 글러브를 받았다. 김상현은 앞선 2일에는 8개구단 선수들이 직접 선정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또 이날 시상식에서 12년만의 KIA 우승

을 일구어낸 조병현 감독과 황병일 코치는 프로코치상을 수상했다. 김조호 단장은 프런티어를 받으며 KIA의 잔치가 벌어졌다. 10일에는 전현직 프로야구인들의 모임인 '일구대상 시상식'과 '2009 스포츠포토 올해의 상'이 동시에 열린다. 김상현은 이날 일구상 최고타자상을 받는다. '올해의 상' 타자상 수상도 유력시되면서 두 개의 트로피를 동시에 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에는 호랑이들의 황금잔치가 벌어진다. 지난 5년간 KIA가 배출한 골든글러브 수상자는 2006년 이용규(외야수)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이용규 홀로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그동안 남의 잔치였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KIA는 2009 골든글러브 시상식 다관왕 자리를 예약해두었다. 후보만해서 7명으로 8개 구단 중 가장 많다.

로페즈(투수), 김상훈(포수), 최희섭(1루수), 안치홍(2루수), 김상현(3루수), 이현근(유격수), 김원섭(외야수) 등 전 포지션에 후보를 전진 배치한 KIA는 최소 4개의 골든글러브를 노리고 있다. KIA의 상 잔치에 후보자의 선수들도 분주한 한 주를 보내게 됐다. 7일 시상식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선수단의 송년회도 겸해서 열렸다. 송년회에 참가한 이용규와 윤석민은 KIA 수상자들을 위한 '꽃놀이' 역할을 자처했다. 지난해 황병일 코치의 인솔아래 포항 자체 캠프에 참가했던 나지완도 '아버지' 황코치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시상식장을 찾았다. 골든글러브 후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11일에는 '형' 최희섭의 수상을 기원하며 축하객으로 행사장을 찾을 계획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타이거즈 캐치프레이즈 공모

KIA타이거즈가 2010년도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KIA 타이거즈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구단 홈페이지 회원에 대상으로 2010시즌의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다. 캐치프레이즈는 V10에 걸맞는 KIA의 위상과 호랑이의 용맹함, 새로운 각오로 새 시즌에 임하는 선수단의 기상 그리고 팬과 하나되어 승리를 열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면 된다. 응모는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가능하며 대상에게는 최신 노트북이 주어진다. 당첨자는 오는 24일 구단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추신수 '올해의 인디언스 선수'

내년 시즌을 기약하며 지난 5일 미국으로 돌아간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클리블랜드 지회에서 뽑은 '올해의 인디언스 선수'로 선정됐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MLB.com)는 7일(한국시간) '2009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 수상자' 선정 결과를 전하면서 추신수가 내야수 아스트루발 카브레라(24)를 제치고 올해 인디언스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로 뽑혔다고 밝혔다. 클리블랜드 지역신문 '플레인딜러' 인터넷판은 추신수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올해의 선수가 됐다고 전했다. 클리블랜드의 마크 사피로 단장은 "추신수는 자신의 재능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라며 "추신



수는 아직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의 열정과 직업윤리라면 시즌을 거듭할수록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레인딜러는 클리블랜드가 추신수와 카브레라에게 다년 계약 제의를 하더라도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신수는 이번 시즌 타율 0.300과 20홈런, 86타점, 21도루로 아시아 타자 최초로 20-20 클럽에 가입하는 등 빅리그 진출 이후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카브레라는 2009시즌 타율 0.308에 6홈런, 68타점, 17도루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 12일 학강초 야구부 후원의 날 행사

### 양현종·이원석 공로패

학강초등학교야구부 후원의 날 행사가 열린다. 학강초(교장 서정권)가 오는 12일 정오 학교 강당에서 야구부후원의날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영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과 학강초 출신의 프로야구 선수 양현종(KIA·사진)과 이원석(두산) 등이 참석한다. 프로야구 무대에서 맹활약하며 모교의 명예를 높인 양현종과 이원석은 학교 측으로부터 공로패를 전달 받는다. 올 시즌 12승을 거두며 KIA의 우승 행보에 힘을 더한 양현종은 2010시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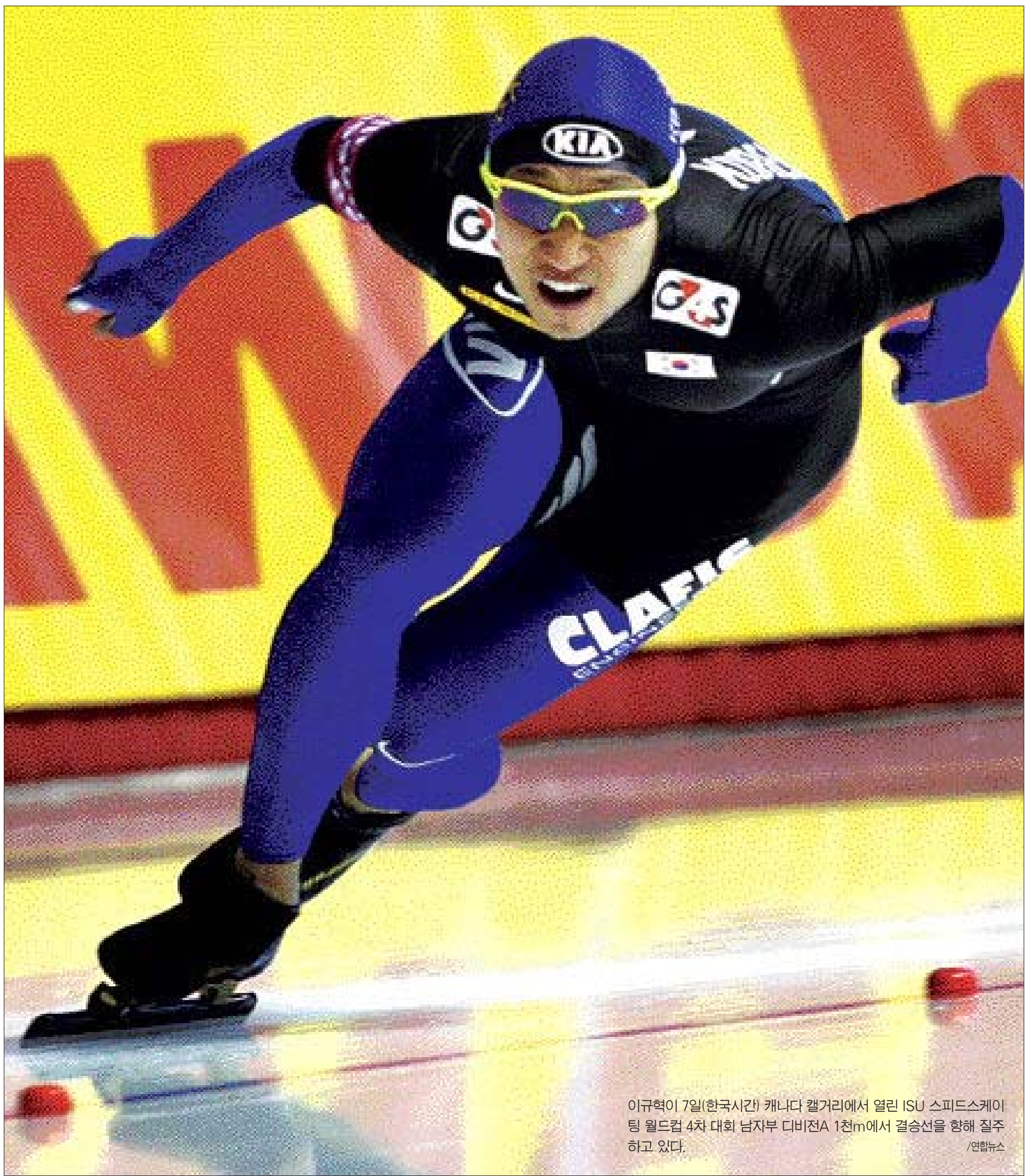


터 탈삼진 한 개당 1만원을 후원금으로 적립해 모교인 학강초에 기부할 계획이다. 올 시즌 양현종은 139개의 탈삼진을 기록했다. 한편 1995년 재창단한 학강초 야구부는 2007년 KBO 총재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우승, 2009 KIA타이거즈기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대회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광주지역 아마 야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빙속 망형' 이규혁 월드컵 4차 1000m 銀

스피드스케이팅 '망형' 이규혁(서울시청)이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1,0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규혁은 7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막을 내린 대회 남자부 디비전A(1부리그) 1,000m에서 1분07초61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미국의 '흑색탄환' 사니 데이비스(1분06초91)에 0.7초 뒤진 2위를 차지했다. 이규혁의 기록은 자신이 지난 2007년 11

월 세웠던 한국기록(1분07초07)에 0.54초 차로 다가선 좋은 성적이다. 함께 출전한 모태범(한국체대·1분08초03)과 문준(성남시청·1분08초20)은 각각 5위와 8위를 차지했다. 또 여자부 디비전A 1,000m에 나선 이상화(한국체대)는 1분15초99로 결승선을 통과해 13위에 그쳤지만 자신이 지난 3월 세웠던 한국기록(1분15초88)에 0.11초 차로 접근했다. /연합뉴스



이규혁이 7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남자부 디비전A 1천m에서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